

시대는 기술이 선도하고 있다. 기술이 경제성장의 열쇠가 되어 있고, 또 그러한 기술은 문화 속에 깊숙이 파고 들어 사람의 감성까지도 변화시켜 놓는다. 이제 기술은 하부 조직이 아니다. 기술에는 기술 그 자체로 남아 있지 않고 반대로 그것을 만들어 낸 인간의 인식과 감성을 바꿔 놓는 힘이 잠재해 있다. 이처럼 기술이란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면서도 동시에 인간의

내려가려 하며 나아가 우주까지도 미래 주거환경의 연구대상으로 삼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생각은 전혀 새로운 것은 아니다. 이처럼 기술을 신뢰한 미래에의 비전은 이미 60년대에 펼쳐졌던 것들이며 기본적인 생각에는 지금과 그리 큰 차이는 없다. 다만 지금이 그때와 다른 점은 인간이 건축을 통해 기대하는 바를 초기기술로써 해결할 수 있다는 자신감에 가득 차 있다는

## 현실과 幻影의 건축기술

건축은 첨단기술로 분류하지도 않는다. 삼풍백화점의 참사를 보고도 문제점의 맥을 짚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 안타깝다. 세계화를 위한 첨단건축기술을 남의 것 아닌 우리 것으로 차분히 개척해 나가야 하겠다.

사실뿐이다.

그렇다면 우리의 현실은 어떠한가? 우리는 이와 같은 미래를 향한 실제의 기술을 과연 얼마나 축적해 왔으며 또 얼마나 축적하고 있는가? 그러나 그 대답은 매우 회의적이다. 대학원생이나 연구원에 대한 해외 연수 장학생 모집공고에는 건축은 늘 빠져 있으며 교육부에서 시행하는 각종 정책에도 건축은 첨단기술로 분류하지도 않는다. 기술이라는 것이 하루 이틀에 얻어지는 것이 아닌데 정책에도 끼여있지 못하니 과연 무엇을 보고 건축의 발전된 기술을 기대할 수 있으며 첨단 기술이 적용되리라고 바랄 수 있겠는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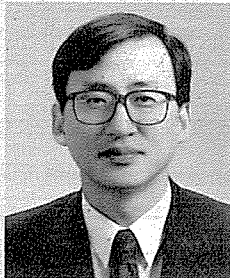
감성까지도 변화시켜 결국에는 인간으로 하여금 幻影의 유토피아를 꿈꾸게 만드는 원인이 되기도 한다.

### 건축은 첨단기술 아닌가

오늘날 건축문화는 고도의 테크놀로지를 구가하고 있다. 구조는 고강도를 넘어 초강도를 추구하고 있고,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초고층건물은 그 자체가 거대한 도시가 되리라는 것이다. 만일 그렇게 된다면 이제 대지는 공중에 매달릴 것이고 미래의 인간은 새로운 거주 시스템에 둘러싸인 채 공중 대지 위에서 살게 될 것이다. 사람들은 기술에 바탕을 두고 바다 속으로 들어가려 하고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깊은 지하에도

### 세계화위한 건축의 위상은

말하고도 싶지 않은 삼풍백화점 붕괴사건을 보며 언론은 그렇게 비리와 행정의 난맥상을 보도하지만 정작 낙후된 건축기술을 제 궤도에 올려놓아야 한다는 그야말로 원리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전혀 맥을 짚지 못하고 있다. 국가정책은 남에게 뒤질세라 얼마나 건축기술을 지원해 준 적이



金光鉉  
(서울대 건축학과 교수)

있으며, 건축을 이 사회를 대변하는 고급기술로서 인정해 준 적이 있었는데 가 자문해야 할 것이다.

학계에서는 공학과 기술을 어떻게 교육시키며 세계화되기 위한 건축의 첨단기술이 도대체 어디에서 가능한지 심포지엄 한번 열어본 적이 없었다. 그렇다면 그것은 현행의 건축기술교육이 담보하고 있다는 증거이다.

각종 잡지는 건축의 첨단기술을 여기 저기 소개하여 마치 우리가 그 기술을 개발하고 보유하고 있는듯이 착각을 일으키게 하지만 엄밀하게 말해서 남의 것을 빌려 우리 것으로 보이게 만드는 효과만 조정할 뿐 정작 우리의 기술이 그만큼 높은데 가 있지 않음을 털어 놓지 않는다.

첨단의 건축기술이란 단지 초고층화, 컴퓨터화 같은 것만이 전부가 아니다. 주거환경과 공급시스템의 고기능 재료의 개발, 종합 방재시스템과 이에 부응하는 재료의 개발과 같이 일일이 열거할 수 없을 정도의 수많은 분야가 이에 포함된다.

그런데도 최근 논의되고 있는 첨단 건축기술이란 극히 제한적이다. 이렇게 세계를 향한 첨단기술이 극히 몇가지 안되는 이름으로 여러 연구자에게 알려져 있다면 그것은 건축 첨단기술이라기보다는 일종의 유행어와 같은 수준을 넘어서지 못했다는 증거이다.

인텔리전트 빌딩이니 초고층이니 첨단의 장비를 갖춘 미래형 주택이니 말은 하지만 우리 건축계 자체내에서 어느 정도의 기술이 개발되어 있는지에 대하여는 분명히 자로 재어 구별하여야 할 것이다. 미래형 주택인 경우, 각종의 홈 오토메이션을 무장해 놓은듯이 보여도 실상 그 기술이 우리 건축

업계에서 다 가능한지 의문이다. 그런데도 우리는 마치 우리의 손으로 우리의 미래를 개척하고 있는듯이 보이게 만드는 것은 상업광고에나 가능한 일이다.

'미래'라는 이름을 붙인 건축물과 아파트의 광고는 幻影으로서의 미래일 뿐이다. 우리의 가정과 가족이 그렇게 살아야 할 당위성이나 가능성에 대한 아무런 고려도 없이, 가상현실을 이용한 사계절의 표현으로 새로운 주거에 신기원이 이루어진 듯이 말하는 것이나, 미래에는 독신자가 많이 나올 것이니 원 룸하우스의 출현이 마치 미래를 예견하는 신주거의 총아인듯이 말하는 것도 알고보면 이미지로 치장된 가상 미래요, 가상기술일 뿐이다.

### 조형의 어휘로만 받아들이

이것만큼이나 문제인 것은 '미래'의 기술이 던져줄 단편화의 이미지를 설계의 개념으로 받아들이고 날아가는 조형미를 통해 저 창공을 향해 가볍게 부유하는 듯이 건축을 조형의 어휘로만 받아들이고 있는 일부 한국의 건축 설계이다.

실제의 기술과는 전혀 무관하게 우리가 갖고 있지도 않고 경험해보지도 않은 첨단기술의 가상세계를 물체로 번안하여 표현하고는 마치 우리가 첨단의 세계 속에 잠입하여 살고있는 듯이 뒤바꾸어 놓는 것도 사실은 세계화를 향한 실제의 기술개발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것들이다. 미래에 대한 보라빛 열망은 가득차 있으나 이를 실현할 만한 실제의 기술을 갖지 못한 채 그 대신 단편의 형태만을 가지고 기술의 이미지를 구가하고 있다면 그것은 이미 머리 속에서만 존재하는 幻影의 기

술이다.

이러한 경향은 학생들에게 특히 전형적으로 나타난다. 현실의 기술은 터득하지도 못한 채 건축공간 여기 저기에 컴퓨터가 내장되어 있다고 가정하고 있고, 심지어는 건축공간을 영화의 전개에 빗대어 건축 그 자체를 해체시키는 일에 몰두하는 것도 幻影으로서의 기술만을 구가하기 때문에 생긴 결과이다. 기술을 현실의 절박한 상태를 해결하는 수단으로 보지 않고 미래를 구가하기 위한 한가지 방법으로 보고 있는 것이다.

컴퓨터를 만지지도 않으면서 컴퓨터가 그리는 세계와 같은 건축공간을 만들고 인간의 생활 자체도 그렇게 변화하리라 확신하고 있다. 방수하는 기술에는 그다지 관심은 없지만 컴퓨터가 그려내는 가상의 현실에는 아주 커다란 관심을 가지고 있다.

### 현실의 기술 먼저 다듬어야

현실의 기술은 아직 여기에 있는데 미래의 기술로 현실의 기술을 포장하려 하고 미래의 기술로 현재의 건축을 상품화하려는 것으로는 한국의 건축기술은 누가 보아도 결코 세계화될 수 없다. 문제는 말로만 첨단, 첨단하지 말고 현실의 기술로 다듬고 해결할 일이다. 그리고 기술개발에는 별로 마음이 없으면서 이미지만을 빌어 현실의 기술로 착각하지 않게 하는 일이다. 그렇게 착각하게 만드는 미래의 기술만을 반복할수록 현실의 기술은 저 멀리 있게 될 것이며 건축기술의 세계화는 커녕 사회는 건축을 저 아래의 로테크(Low technology)중의 하나로 밖에 보여주지 않을 것이다. ㉞